

한국 성인의 자기 기술과 아동기 회상에 관한 발달적 연구

김 현 정
이화여대
사회과학 연구소

방 희 정*
이화여대
심리학과

조 혜 자 조 숙 자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본 연구는 성과 연령에 따라 성인들의 자기 기술과 아동기 회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자기와 자전적 기억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20대에서 50대에 속하는 성인 남녀 352명을 대상으로, 단축형 문장완성검사를 통해 자기-기술을 하게 하고 기억 질문지를 통해 최초 아동기 기억을 보고하게 하였다. 최초 기억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 성인들이 보고한 최초 아동기 기억 나이는 4세 8개월이었고, 긍정적 정서와 중간 강도의 정서가 특징적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더 이른 시기에 경험한 최초 기억을 보고했으며, 남성과 낮은 연령의 사람들이 최초 기억을 보다 짧게 보고했고, 타인을 낮은 비율로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 성인들의 자기 기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개인적 자기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남성이 높은 개인적 자기와 낮은 관계적 자기를 보고했다. 자전적 기억과 자기 간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 자기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기억에서 자신에 비해 타인을 언급하는 비율이 낮고, 정서와 관련된 언급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자기평가 경향은 정서를 덜 언급하는 것과 관련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서구에서 실시된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함으로써, 기억과 자기가 함께 구성되며 이러한 양방향적인 과정이 개인의 전생애적인 발달을 통해 일어남을 살펴보았다.

주요어 : 문화적 자기해석양식, 독립적 자기, 관계적 자기, 자전적 기억, 최초 아동기 기억

우리는 종종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위해 성
장 과정이나 유년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여
기에는 현재의 내가 과거 역사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는 다양한 경
험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가 수많은 삶의 경험들 중 특정한 이야기를 할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FRF-2004-074-HS0005).

* 교신저자 : 방희정, E-mail: hjbang@ewha.ac.kr

때 어떤 내용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하게 하는 배후 기제는 무엇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McAdams(1997)는 과거에 경험된 조각난 부분을 엮어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은 현재의 자기라고 제안하면서, 자전적 기억이 자기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시사하였다. 자기와 자전적 기억의 관련성에 대해서 Kelly(1955)는 개인적 경험이 기존의 자기 구조 내에 담겨 있고 자기 구조에 담긴 기억은 다른 것보다 분명하게 기억된다고 지적했고, Schachtel(1947)은 자전적 기억이 현재의 욕구, 두려움, 흥미에 따라 과거 경험으로부터 재구성된 현재 성격의 합수라고 규정했다. 최근의 연구자들도 자기와 자전적 기억 간의 이론적 연결을 시도하면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을 부호화하고 조직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하고(Greenwald, 1980; Rogers, Kuiper, & Kirker, 1977; Ross & Wilson, 2000; Thompson, Skowronski, Larsen, & Betz, 1996), 자전적 기억의 구성적인 과정 또한 역동적인 자기 개념을 발달, 유지시키고, 표현하는데 필요한 주요 요소임(Bruner, 1990; Fitzgerald, 1992; Fivush, 1994; Nelson, 1996; Pillemer & White, 1989)을 밝히고 있다(Wang, 2001 재인용).

최초 아동기 기억은 자전적 자기의 출현을 상징하므로, 기억과 자기 간의 상호적인 관계를 연구하는데 유용한 렌즈를 제공할 수 있다. 최초 아동기 기억의 평균 연령은 대체로 3세 반 정도로 보고되어 왔는데, 많은 연구들이 이 연령 이전의 기억은 '영아기 기억 상실증'으로 기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아기 기억이 성적 욕망과 관련된 정서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이디푸스 시기 이후의 초자아가 이를 억압한 결과

영아기 기억 상실증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Freud(1949)가 설명한 이후, 자전적 기억의 출현은 신경학적, 인지적, 언어적, 그리고 사회적 기제와 관련됨을 시사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Mullen, 1994). 그 중 인지 발달 입장에서는 자기를 인지적으로 아는 것이 개인적 사건 기억의 주요 전조라고 이해한다. 즉 '거울 자기 재인(mirror self-recognition)'을 통해 알 수 있는 인지적 자기감(cognitive sense of self)의 발달이 자전적 기억의 출현에 중요하다는 것이다(Howe & Courage, 1993, 1997; Wang, 2001). 그러나 인지적 과정에만 초점을 두는 접근은 사회적 맥락을 간과함으로써 기억과 자기의 출현 및 발달에 대해 제한적인 이해만 가능하게 하므로, 자전적 기억과 관련된 논의는 인지적 과정 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Nelson(1988)과 Snow(1990)는 아동이 경험했던 사건을 성인과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자전적 기억이 발달하게 된다(Mullen, 1994 재인용)고 설명하면서 자전적 기억의 구성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Bruner(1990)와 Fivush(1994), Tessler와 Nelson(1994) 등은 기억과 자기 모두가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측면을 제안하였다.

자기와 기억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입장을 지지해주는 한 실증적인 연구(Wang, Leichtman, & White, 1998)에 따르면, 한 자녀 가정 출신의 성인은 형제가 있는 가정 출신의 피험자에 비해 보다 이른 시기의 기억을, 보다 자기 중심적인 용어로 기술했는데, 이 결과는 개인의 자기가 조직되고 개인적 경험이 기억되는 방식에 유아기의 양육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다양한 사회화 관행이 특정 형태의 자기 조직화를 통해 자전적 기억의 출현을 촉진 혹은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Bronfenbrenner

(1979)는 가족을 포함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실시되는 사회화 관행이 보다 큰 문화적 가치를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으로 하여금 특정 가치와 신념을 수용하도록 촉진시킨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부모가 자신이 속한 문화적 가치와 기대에 부응하는 아동의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문화 환경에 따라 다른 자기를 발달시킬 수 있음(Wang & Leichtman, 2000 재인용)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비교문화적 연구는 자전적 기억과 자기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유용한 분석 전략이 될 수 있다.

비교 문화 연구에서는 자기를 사회문화적 산물로 이해하면서 ‘문화적 자기해석 양식’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즉 문화에 따라 서구 문화권에서는 자기-표현, 개인의 독특성, 개인적 유능감을 강조하는 독립적인 자기 해석 양식을 발달시키는 반면, 집단 결속, 상호의존적 연계, 개인 간 온정을 강조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상호의존적인 자기 해석 양식을 발달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에 대한 개념적 표상에서의 문화적 차이는 자전적 기억의 다른 형태와 상응된다(Markus & Kitayama, 1991). 즉 상세하고 정교한 개인적 사건 기억은 독립적 자기 해석 양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독특한 개인으로 구별하기 위해 중요한 반면, 집단적 활동과 상호관계성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타인과 관련된 기억이 더 중요하고 자신에 대한 자세한 기억을 덜 필요로 할 수 있다.

자전적 기억의 출현에 관한 비교 문화적 연구가 극히 적기는 하지만, Mullen(1994)에 따르면 한국인의 최초 기억의 나이(55.5개월)가 미국인의 경우(38.8개월)보다 유의미하게 늦었고, Pillemer와 White(1989)는 아시아인에 비해 서양인이 특정 시점에 일어난 독특한 사건을 자유롭

고 자기를 많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더 길게 설명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Han, Leichtman과 Wang(1998)은 미국과 아시아 학령전기 아동의 자전적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미국 아동의 기억이 더 정교하고 특수하며, 더 자기-초점적으로 보고되었음을 밝혔다. 이들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문화에 따른 자전적 기억의 차이는 자전적 기억이 자기 해석 양식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정서적 측면에서도 자기 해석 양식과 자전적 기억의 관계를 고찰해 볼 수 있는데, 미국 성인의 최초 아동기 기억에서는 정서적 특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Dudycha & Dudycha, 1941; Howes, Siegel, & Brown, 1993). 비교문화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 자기 해석 양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서는 자기에 대한 직접적 표현이고, 개인의 중요성을 확증해 주는 것이지만, 상호의존적 자기 해석 양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서는 대인관계에 파괴적이거나 위협할 수 있으므로 통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독립적 자기나 상호의존적 자기를 가진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식을 기억으로부터 처리하고 조직화하고 회상하는 사회인지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서 표현의 양상이나 정도에서의 차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자기 해석 양식과 기억의 관계를 연구할 때 인지와 정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Wang(2001)은 성인들의 최초 아동기 기억과 현재 자기 기술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를 미국인과 중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문화적 자기 해석 양식과 개인의 자전적 기억 간에 주요 연결 고리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비교 문화 연구를 통해 문화적 차이 측면에서 성인의 최초 아동기 기억의 인지

적 양식과 사회 정서적 특징을 분석하고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자기와 자전적 기억이 상호작용하는 측면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Wang(2001)의 연구와 같이 문화를 독립 변수로 다루는 비교 문화 연구들은 거시적 수준에서 문화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는 면에서 유용성이 있으나, 한 문화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산성에 대해서는 설득력있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특히 최초 아동기 기억은 그 기억이 형성될 시점의 아동의 자기 해석 양식의 특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Conway, 1996; Wang, 2001), 지금 성인의 자기와 성격의 핵심 주제를 구성하는 현재의 목표, 태도, 관심을 반영한다(Ross & Wilson, 2000; Schactel, 1947; Singer & Salovey, 1993; Wang, 2001)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전의 비교 문화 연구들은 기억과 자기 해석 양식에 작용하는 동시대집단 효과와 연령에 따른 발달 과업의 영향을 고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발달 이론가들은 개인의 자기가 성인기에도 연령에 따라 변화되어 간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 Erikson(1968)은 사람들이 연령에 따라 다른 심리사회적 위기를 맞게 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발달된다고 설명하였다. 생애경로이론(life-course theory)에서도 개인의 삶(life)이 삶의 내용, 유형 및 방향을 구성하는 특정한 역사적 시간과 장소 속에 사회적으로 놓여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Elder, 1998), 생애경로 자체가 사회적으로 정의된 역할과 사건을 중심으로 한 연령 분류적 과정(age-graded)이므로, 자기도 삶의 시간에 걸쳐 구성되고 수정되며 통합된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Whitbourne(1996)은 자기 정체성이 연령 증가와 더불어 자기 도식에 따라 경험을 해석하는 동화

단계, 자기 도식에 불일치하는 새 경험에 반응하여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조절 단계, 조절과 동화 간의 역동적인 평형을 이루는 단계를 거쳐 발달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에 기초해 볼 때, 주로 20대에 국한되어 왔던 연구 대상을 성인기 전반으로 확대시켜, 성인기에 변화되는 역할과 생애 사건 등을 중심으로 성인기 자기와 최초 기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심리학의 많은 연구에서 개인의 성은 자기 해석 양식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Freud는 여성의 성 기관이 수동적으로 타인에 의해 만족되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서 여성의 성격은 수동적이고, 자기도취와 수치심 등을 띠게 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이후 여성주의 정신분석 학자나 심리학자들에 의해 신체 구조적 차이를 자기와 연결시켜 설명하는 측면에서 비판받았지만(조혜자, 방희정, 김아영, 2006), 서양 전통에서 여성의 문제를 다루어온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남성들의 자기는 타인과 구별되는 독립을 근간으로, 여성들의 자기는 타인과 연합하는 관계적 자기를 가진다고 설명하면서(Chodorow, 1989; Gilligan, 1982; Eagly, 1987), 남성과 여성은 다른 자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분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적 자기해석 양식과 관련해, Cross와 Madson(1997)은 자기가 역동적인 문화적 창조물이기 때문에, 젠더화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남성은 독립적 자기해석 양식이, 여성은 상호의존적 자기 해석 양식이 우세하고 자기 해석 양식에 따라 정보처리와 기억하는 양상, 동기, 정서의 표현, 자기개방의 정도, 의사소통의 양상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입

장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성들은 돌봄과 양육을 강조하는 문화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독립적인 자기보다는 관계적 자기를 갖게 되고, 우세하게 활성화된 관계적인 자기해석 양식은 최초 아동기 기억의 회상 내용 및 정서 표현 등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유교 문화에 뿌리를 두어 개인보다는 타인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와 남녀에게 다른 규범과 역할을 강조하는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가 아직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급격한 근대화 과정 속에서 관계보다는 개인을 우선시 하는 개인주의적인 문화와 성평등적인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어, 한국 성인들의 자기 해석 양식과 자전적 기억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한국 성인들의 자기와 자전적 기억의 발달적이고 사회구성적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자기해석양식’이라는 문화심리학적 개념을 채택하면서도 성과 연령에 따라 자기와 자전적 기억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발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계층화된 우리 사회의 특성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과 연령에 따른 자기해석 양식과 최초 아동기 기억의 특성을 알아보고, 자전적 기억과 문화적 자기해석양식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성인이 회상하는 최초 아동기 기억은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가?

1-1. 최초 아동기 기억으로 보고한 사건의 당시 연령은 언제인가?

성과 연령에 따라 최초 아동기 기억의 연령에 차이가 있는가?

1-2. 최초 아동기 기억의 양은 어떠한가?

성과 연령에 따라 최초 아동기 기억의 양에 차이가 있는가?

1-3. 최초 아동기 기억의 내용은 개인, 가족, 이웃, 학교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성과 연령에 따라 최초 아동기 기억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1-4. 최초 아동기 기억에서 나타난 사회 지향 정도는 어떠한가?

성과 연령에 따라 최초 아동기 기억의 사회 지향성에 차이가 있는가?

1-5. 최초 아동기 기억의 정서적 특징은 무엇인가?

성과 연령에 따라 최초 아동기 기억의 정서에 차이가 있는가?

2. 한국 성인들은 자신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하는가?

2-1. 한국 성인은 자신을 문화적 자기 해석 양식 측면에서 어떻게 기술하는가? 성과 연령에 따라 자기해석양식 기술에 차이가 있는가?

2-2. 한국 성인은 현재의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성과 연령에 따라 자기 평가에 차이가 있는가?

3. 한국 성인들이 보고한 최초 아동기 기억과 현재 자기에 관한 기술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대에서 50대에 속하는 성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응답 내용이 부실한 49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52명의 응답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응답자의 성과 연령에 관한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었다. 응답자들은 형제 순위별로 보면 독자 3명, 첫째 124명, 둘째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224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듣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했으며, 설문에 응답한 대가로 1만원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을 증정하였다.

절 차

첫 번째 질문지는 응답자의 최초 아동 기억에 관해 묻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문화권에서 실시된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Wang(2001)의 논문에서 사용된 방식과 동일하게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Mullen(1994)에 기초해 출생 순서, 형제 자매의

수, 그리고 8세 이전의 주 양육자, 부모님 직업에 관한 항목을 인적 사항 부분에 포함시켰다. 인구통계학적인 정보에 답한 후, 잠시 자신의 최초 아동기 기억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 후, 그 기억을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라고 지시했다. 이 때 그 기억은 최초 아동기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기억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냥 사진으로 보기만 했다가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기만 한 기억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었다. 응답자들은 기억에 관해 쓴 후, (a) 기억한 사건 당시의 나이, (b) 그 당시 느낌, (c) 자신이 경험했던 구체적 정서가 무엇인지, (d) 그 기억에 대하여 이전에 생각하거나 말한 적이 있는지, (e) 일반적으로 아동기 기억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답했다.

두 번째 질문지는 TST(Twenty Statement Test, Kuhn & MacPartland, 1954)의 단축형으로, 응답자에게 ‘나는’ 으로 시작되는 10개의 미완성 문장을 주고, 짧게 각 문장을 완성할 것을 지시했다. 원래 TST는 ‘나는 ____’이라는 질문을 20번하고 자신에 대해 자발적으로 답하게 하는 검사이나, 20번을 반응하게 할 때의 무응답을 문제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Wang(2001)을 따라 10번만 반응하는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표 1. 성별, 연령별 응답자의 사례수 및 연령의 평균 (표준편차)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남	38	24.05	36	32.97	39	44.23	40	55.33
(N=153)		(2.38)		(2.57)		(2.73)		(3.71)
여	55	24.69	56	33.12	47	44.72	41	53.78
(N=199)		(3.08)		(2.74)		(2.94)		(3.92)
전 체	93	24.37	92	33.05	86	44.48	80	54.56
(N=352)		(2.73)		(2.66)		(2.84)		(3.82)

코딩

(1) 최초 아동기 기억 관련 변수

최초 기억의 연령 최초 기억으로 보고한 일을 경험한 당시 연령을 쓰되, 추정된 연령은 ____세 ____개월까지 최대한 기억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기억의 양 기억 이야기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단어 수와 명제 수 두 가지 기준을 채택하였는데, 단어 수는 표준 맞춤법 표기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개수를 세었다. 명제 수는 Wang(2001)의 연구에서와 같이 주어 동사의 구조로 정의한 명제 개념(Fivush, Haden, & Adam, 1995, Wang 재인용)을 따르되, 현 연구에서는 흔히 1인칭 주어가 생략되고 서술어 중심으로 구성된 한글의 특성을 유념하여 분석하였다.

기억의 내용 Wang(2001)은 Waldfogel (1948)의 연구에 기초하여 각 기억을 개인(예, 성공, 좌절, 꿈, 악몽 등), 가족(예, 부모의 훈육, 가족 활동 등), 이웃(예, 이웃과 놀거나 논쟁한 것 등), 학교(예, 선생님, 좋아하는 과목 등)의 네 유목 중의 하나로 코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랐고, 기억의 내용은 각 사건의 맥락적 배경보다는 핵심 주제에 기초하여 범주화했다.

사회적 경향성 응답자가 기억에서 자신과 타인을 언급한 빈도를 각각 센 후, 타인 언급 횟수를 자기 언급 횟수로 나누어 타인 대 자기의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각 응답자의 사회적 지향의 지표로 삼았다.

기억의 정서성 응답자의 기억 서술에서 자발적으로 정서를 언급한 빈도를 산출하고, 기억된 사건 동안의 감정 상태를 5점 척도(매우 불쾌 - 매우 유쾌) 상에서 평가하게 하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기억의 정서성을 코딩하였다.

이전의 회상경험 설문지에 보고한 최초의 아동기 기억을 이전에 회상한 적이 있는지와, 아동기 기억 일반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거나 이야기 하는지를 5점 척도 상(전혀 없음-매우 자주)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2) 자기 기술 관련 변수

단축형 TST에 대한 반응을 크게 자기 해석 양식과 자기 평가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자기 해석 양식 Wang(2001)은 Trafimow, Triandis와 Goto(1991)에 기초해 자기 기술 내용을 개인적, 집합적, 관계적 자기로 코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랐다. 즉 타인과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 특성, 태도, 신념, 행동을 언급한 반응을 ‘개인적 자기-기술’(예, 나는 정직하다, 행복하다, 지적이다)로, 응답자가 운명이라고 경험할 수 있는 통계 인구학적 범주나 집단에 대한 반응을 ‘집합적 자기-기술’(예, 나는 카톨릭 신자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학생이다)로, 상호의존, 우정, 타인에 대한 반응성, 혹은 타인 관점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된 반응을 ‘관계적 자기-기술’(예, 나는 내 남자 친구에게 깊이 빠져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로 코딩하였다. 각 유목에 해당하는 반응의 수를 세어 유목별로 합산하여, 각 응답자의 개인적 자기 기술, 집합적 자기, 관계적 자기를 나타내는 지표

로 삼았다.

자기 평가 ‘나는_____’에 대한 반응을 긍정적인 자기 평가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자기 평가인지에 따라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재능있고, 예쁘고, 좋은 품성을 가졌다’는 긍정적 평가로, ‘나는 따분하고 못생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부정적인 자기 평가로 코딩하였다. 두 차원의 평가에 해당하는 반응의 수를 각각 세어, 각 응답자의 긍정적, 부정적 자기 평가 점수를 산출하였다

결 과

모든 변수에 대해 성별과 연령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속 변수에 대해서는 2(성별) * 4(연령) 이원변량분석과 MANOVA, 그리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범주 변수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과 다항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 중 출생 순서를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고,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으므로, 출생 순서만 공변량으로 통제하여

이후의 모든 분석에서 그 효과를 통제하였다. 일부 응답자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도가 각 검증마다 약간씩 상이하게 보고되었다.

최초 아동기 기억

최초 기억 당시의 나이

한국 응답자들이 보고한 최초 기억의 나이는 4세 8개월(표준편차 2.0)로 나타났다. 성과 연령에 따른 최초 기억의 나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최초 기억의 나이가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 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 339)=3.443, p<.05$). 이에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20대는 30대에 비해 유의하게 더 이른 기억을 보고하였다($p<.01$).

기억의 양

최초 기억의 양을 단어 수와 명제 수로 측정하였다. 단어의 수와 명제의 수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r=.763, p<.0001$). 성과 연령에 따른 최초 기억의 양을 <표 3>에 제시하였다. 단어 수가 성

표 2. 성별, 연령별 최초 기억의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남	4.7 (1.8)	5.0 (1.5)	5.1 (2.7)	5.0 (2.2)	5.0 (2.1)
여	4.0 (1.5)	5.1 (2.1)	5.1 (2.1)	4.9 (1.8)	4.8 (1.9)
전체	4.3 (1.7)	5.1 (1.9)	5.1 (2.4)	5.0 (2.0)	4.8 (2.0)

표 3. 성별, 연령별 최초 기억의 양

	단어수					명제수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남	18.3 (10.1)	19.5 (10.6)	18.7 (11.0)	19.6 (11.7)	19.0 (10.8)	3.9 (2.4)	4.8 (3.3)	4.7 (2.9)	5.2 (2.9)	4.6 (2.9)
여	18.7 (11.7)	20.3 (10.3)	22.1 (11.6)	22.8 (15.4)	20.8 (12.1)	4.9 (2.9)	5.4 (3.2)	4.9 (3.1)	6.5 (4.5)	5.4 (3.5)
전체	18.5 (11.0)	20.0 (10.2)	20.5 (11.4)	21.3 (13.7)	20.0 (11.6)	4.5 (2.8)	5.2 (3.2)	4.8 (3.0)	5.8 (3.9)	5.1 (3.2)

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차와 연령차가 모두 의미있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명제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과 연령 모두 의미있게 나왔다(성 $F(1, 342)=4.77, p<.05$, 연령 $F(3, 342)=3.86, p<.01$). 이에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50대는 20대에 비해 더 긴 기억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긴 기억을 보고했다($ps<.05$).

기억의 내용

최초 기억 내용을 개인, 가족, 이웃, 학교라는 네 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응답자들이 보고한 최초 기억의 내용이 개인, 가족, 이웃, 학교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법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법은 종속 변수가 다항형인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 사건을 기준(reference)으로 두고,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대비하여 분석한다. 먼저 독립변수가 추가되지 않은 기저 모형과 독립변수로 성, 연령, 형제순위가 사용된 최종 모형을 선정하고, 최종 모형에서 $-2 \log \text{likelihood}$ 값과 3개의 독립변수를 추정한 분석모형의 $-2 \log$

likelihood 값의 차이 Chi를 산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26.702, p<.05$). 이에 각 독립변수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특정 변수를 제거한 후, $-2 \log \text{likelihood}$ 가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평가한 결과, 성별 변수만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2.834, p<.01$). 성별에 따른 각 범주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수는 <표 4>와 같다.

마지막으로 기억의 네 범주 중 개인 범주를 기준으로 하고, 가족, 이웃, 학교의 대비 효과를 성의 함수로 검증하였는데,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성별 변수의 로지스틱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Wald 검증을 한 결과 최초 기억에서 학교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것에서는 개인의 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가족과 이웃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것에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관련 기억을 보고한 경향성에 대한 성별 변수의 로지스틱 회귀 계수 $-.79$ 에 대해 Wald 검증을 한 결과, .001 수준에서 성별이 가족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남성이 1, 여성이 2로 코딩되었고, 회귀 계수가 음수를 가지므로, 여성이 더 가족 관련 기억을 많이 보고하는 경향이

표 4. 성별 최초 기억의 내용

	개인	가족	이웃	학교	전체
남	61	72	11	8	152
여	47	120	24	7	198
전 체	108 (30.9%)	192 (54.8%)	35 (10%)	15 (4.3%)	350 (100%)

표 5. 기억 내용에 대한 성별 변수의 효과에 관한 Wald 검증 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Wald	자유도	Sig.	승산비
가족 관련	성별	-.792	.248	10.233	1	.001	.453
이웃 관련	성별	-1.027	.415	6.110	1	.013	.358
학교 관련	성별	-.204	.572	.127	1	.721	.815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승산비를 볼 때 .453으로 남성이 가족 관련 보고를 할 가능성이 .453배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웃관련 기억을 보고한 경향성에 대한 성별 변수의 로지스틱 회귀 계수 -1.027에 대해 Wald 검증한 결과, .05수준에서 유의하였는데, 이는 여성이 이웃 관련 기억을 더 많이 보고한 경향이 있고, 남성이 이웃 관련 기억을 보고할 가능성은 .358배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경향성 (타인 vs 자기의 비율)

최초 기억에서 사회 지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 기억 이야기에서 언급한 모든 인칭을 세되, 일인칭(생략된 일인칭 포함)과 타인 인칭(생략된 타인 포함)을 각각 세어, 타인 인칭의 총수를 일인칭의 총수로 나누어 그 비율을 사회적 경향성 점수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최초 기억에서 나타난 사회적 경향은 평균 .75(표준편

차 1.05)를 나타냈다. 성과 연령에 따른 사회적 경향성 점수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성과 연령에 따른 사회적 경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과 연령에 따른 효과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성 $F(1, 339)=6.857, p<.01$, 연령 $F(3, 339)=7.329, p<.001$).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기억을 보고함에 있어 사회적 경향성, 즉 자신보다는 타인을 더 많이 언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의 주효과에 대한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대는 40대($p<.05$), 50대($p<.001$)와, 30대는 50대($p<.01$)와 타인을 언급하는 경향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기초해 볼 때 대체로 응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타인을 많이 언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6. 성별 연령별 사회적 경향성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남	.39 (.48)	.44 (.48)	.76 (.95)	.83 (1.06)	.61 (.81)
여	.52 (.52)	.68 (.83)	.98 (1.04)	1.39 (2.01)	.85 (1.20)
전 체	.47 (.50)	.59 (.72)	.88 (1.00)	1.12(1.16)	.75 (1.05)

표 7. 성별 연령별 최초 기억의 감정 상태

		매우 불쾌	불쾌	보통	유쾌	매우 유쾌
남 (151)	20대	5	4	6	15	8
	30대	3	4	8	12	9
	40대	1	8	7	11	11
	50대	3	7	12	6	11
	합계	12(8.0%)	23(15.2%)	33(21.9%)	44(29.1%)	39(25.8%)
여 (198)	20대	1	9	15	17	13
	30대	7	5	13	9	23
	40대	7	6	7	15	10
	50대	3	13	12	6	7
	합계	18(9.1%)	33(16.7%)	47(23.7%)	47(23.7%)	53(26.8%)
전 체(349)		30(8.6%)	56(16%)	80(22.9%)	91(26.1%)	92(26.4%)

기억의 정서성

최초 기억에서 느낌과 감정을 자발적으로 언급하는 정도는 평균 1.6(표준편차 1.1)으로 나타났다. 최초 기억과 관련된 감정 상태를 5점 척도(1-매우 불쾌하다, 5-매우 유쾌하다) 상에서 평가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우선 전체 응답자들이 보고한 최초 기억 관련 감정 상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chi^2=40.413$, $p<.000$).

이에 최초 기억 관련 정서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한 자료를 정서의 강도와 긍정성 두 차원에서 다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정서의 강도 점수를, 5점 척도 중 ‘보통이다’에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립적’(0), ‘불쾌하다’와 ‘유쾌하다’에 응답한 사람에게는 ‘강한’(1), 매우 불쾌하다와 매우 유쾌하다에 반응한 사람에게는 ‘매우 강한’(2)의 점수로 변환하여 새로운 점수를 산출하였다. 새로 산출된 정서 강도 점수의 분포는 <표 8>과 같다.

전체 응답자들이 보고한 정서의 강도가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 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chi^2=19.708$, $p<.000$). 한편 성과 연령에 따라 정서 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법을 사용한 결과, 성과 연령 모두 정서 강도에서의 차이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의 긍정성 점수를, 5점 척도 중 ‘보통이다’에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립적’(0), ‘불쾌하다’와 ‘매우 불쾌하다’에 응답한 사람에게는 ‘부정적’(-1), ‘유쾌하다’와 ‘매우 유쾌하다’에 반응한 사람에게는 ‘긍정적’(1)의 점수로 변환하여 새로운 점수를 산출하였다. 새로 산출된 정서의 긍정성 점수의 분포는 <표 9>과 같다.

전체 응답자들이 보고한 정서의 긍정성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chi^2=52.461$, $p<.000$). 성과 연령에 따라 정서 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법을 사용한 결과, 성과 연령이 포함된 전체 모델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110$).

표 8. 최초 기억 관련 정서의 강도

	사례수	%
중립적 정서	80	22.9
강한 정서	147	42.1
매우 강한 정서	122	35.0
합계	349	100

표 9. 최초 기억 관련 정서의 긍정성

	사례수	%
부정적 정서	86	24.64
중립적 정서	80	22.92
긍정적 정서	183	52.44
합계	349	100

이전의 회상 경험

‘최초 기억에 대해 이전에 생각하거나 말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과 연령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 성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지는 않았으나($p=.059$) 여성은 남성보다 더 자신의 최초 기억에 대해 더 자주 생각하거나 말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여성평균 3.31, 표준편차 1.223, 남성 평균 3.05, 표준편차 1.237). 그러나 ‘일반적으로 얼마나 자주 자신의 아동기 기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과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자기 기술

자기 해석 양식

성과 연령에 따른 자기 해석 양식에 대한 TST 검사의 평균 점수가 <표 10>에 제시되었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 모두 자기를 기술함에 있어 개인적 자기 유형으로 가장 많이 기술하였다.

자기해석 양식에 대한 성별, 연령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ANOVA를 실시한 결과, 성과 연령의 주효과가 개인적 자기 기술과 관계적 자기 기술에서 각각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성 $F(1, 350)=6.82, p<.01$, 연령 $F(3, 348)=12.38, p<.001$). 개인적 자기를 먼저 살펴보면,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대는 나머지 연령대 모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개인적 자기를 보고했고($ps<.001$), 남성은 여성보다 개인적 자기를 더 많이 보고했다. 관계적 자기에서는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대가 나머지 연령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관계적 자기를 보고했고($ps<.001$), 남성은 여성에 비해 낮은 관계적 자기를 나타냈다($p<.001$).

자기 평가

자기 평가에 대한 성별, 연령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MANOVA를 실시한 결과, 성과 연령에 따른 자기 평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연령에서 성차 없이 자신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언급하였다. 성과 연령에 따른 자기 평가에 대한 TST 검사의 평균 점수는 <표 11>에 제시되었다.

표 10. 성별, 연령별 자기 해석 양식

		개인적 자기기술	관계적 자기기술	집합적 자기기술
남 (153)	20대	8.16 (2.02)	1.40 (1.50)	.45 (.95)
	30대	7.25 (2.13)	2.25 (1.83)	.50 (.91)
	40대	7.08 (2.13)	2.26 (1.79)	.51 (.82)
	50대	6.20 (2.90)	2.75 (2.00)	1.00 (2.25)
	전 체	7.16 (2.42)	2.16 (1.84)	.62 (1.39)
여 (198)	20대	7.89 (1.86)	1.86 (1.78)	.44 (1.01)
	30대	6.04 (1.87)	3.14 (1.62)	.70 (.84)
	40대	6.24 (2.18)	2.98 (1.79)	.71 (1.01)
	50대	6.10 (3.32)	3.32 (1.90)	.46 (1.10)
	전 체	6.60(2.12)	2.79 (1.85)	.58 (.99)

표 11. 성별, 연령별 자기 평가

		긍정적 자기 기술	부정적 자기 기술
남 (153)	20대	1.97 (1.98)	1.21 (1.19)
	30대	2.50 (2.36)	1.08 (1.27)
	40대	2.54 (2.27)	.92 (1.40)
	50대	3.10 (2.71)	1.28 (1.72)
	전 체	2.53(2.37)	1.13(1.41)
여 (198)	20대	2.38 (2.37)	1.75 (2.19)
	30대	3.04 (2.29)	.95 (1.52)
	40대	3.64 (2.82)	1.33 (1.57)
	50대	3.12 (2.88)	1.15 (1.30)
	전 체	3.02(2.59)	1.30(1.71)
전 체(351)		2.81(1.23)	1.23(1.59)

기억 측정치들과 자기 기술의 관계성

최초 아동기 기억에 관한 변수들의 관계

성과 연령, 출생순위 효과를 통제한 후 전체 표본에 대해 최초 기억 관련 변수들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이 보고한 최초 기억 연령은 정서적 강도($r=.168$, $p<.01$), 정서의 긍정성($r=.140$,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보다 늦은 연령에 일어난 사건일수록 정서가 더 강렬하고, 긍정적인 정서 경험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기억 양에 대한 측정치들(단어 수, 명제 수)은 최초 기억 내용에 있어 정서 수와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단어 수에서만 $r=.163$, $p<.01$). 즉 기억 양이 많을수록, 표현된 정서의 수도 많음을 의미한다. 최초 기억에서 언급된 정서의 수는 정서의 강도($r=.224$, $p<.001$)와 타인 언급 비율($r=.217$, $p<.0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자발적으로 언급된 정서의 수가 많을수록 표현된 정서의 강도도 높고, 타인 관련 언급도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최초 아동기 기억 변수와 자기 기술의 관계

현재 자기에 대한 기술이 응답자가 보고한 아동기 최초 기억의 여러 측정치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성, 형제순위를 통제한 후 전체 표본에 대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기 기술 점수 중 개인적 자기 점수에서 집단적 자기 점수를 뺀 차이 점수로 ‘개인적 자기 성향’ 지표점수를, 긍정적 자기 기술 점수에서 부정적 자기 기술 점수를 뺀 차이점수로 ‘긍정적 자기 평가 경향’ 지표 점수를 산출하여 상관 분석에 포함시켰다. 최초 아동기 기억과 자기 기술간의 상관 분석 결과가 <표 12>에 제시되었다.

자기 기술 방식이 성, 연령, 출생순위 효과와 독립적으로 기억 구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전반적으로 매우 작고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서의 수와 타인 언급 비율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었다. 즉 개인적 자기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서와 관련된 언급을 더 많이 하고($r=.217$, $p<.001$), 최초 기억에서 타인을 언급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182$, $p<.001$). 자기 기술에서 ‘긍정적 자기 평가 경향’은 기억의 측정치 중 정서의 수와 부적으로 유

표 12. 최초 기억 변수와 자기 기술 변수 간의 상관

변 수	1	2	3	4	5	6	7	8	9
최초 기억									
1. 연령	—	.029	-.001	-.102	-.058	.168**	.140**	.094	.009
2. 단어수		—	.763***	.067	.163**	.001	-.081	.000	.050
3. 명제수			—	.002	.047	-.018	-.072	-.018	.011
4. 사회적경향성				—	.217***	-.067	-.053	-.182***	-.050
5. 정서의 수					—	.224***	.071	.217***	-.132*
6. 정서의 강도						—	.223***	-.051	.032
7. 정서의 긍정성							—	.034	-.064
자기 기술									
8. 개인적 자기성향								—	.003
9. 긍정적자기평가경향									—

*** $p < .001$, ** $p < .01$, * $p < .05$

의미한 상관을 나타내, 긍정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일수록 최초기억에서 정서를 덜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다($r = -.132$, $p < .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20대에서 50대에 속하는 한국 성인들의 자기와 최초 기억의 특성을 성과 연령의 함수로 분석함으로써, 자기와 아동기 회상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 과정에 성과 연령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최초 아동기 기억 관련

최초 기억 나이 한국 성인이 보고한 최초 기억 나이는 4세 8개월로, 이는 Mullen(1994)이

보고한 한국인의 최초 기억나이 55.5개월과 유사하고, Wang(2001) 연구에서 보고되었던 미국인 41.88개월, 중국인 47.45개월에 비해 다소 느린 결과이다. 연령별로 살펴볼 때, 20대는 30대에 비해 유의하게 더 이른 기억을 보고하였다. 20대가 가장 이른 기억을 보고한 것은 초기 기억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구성되고 정교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가 젊어질수록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많은 응답자가 ___개월에 해당되는 부분에 응답하는 것을 누락한 채 ___세까지만 보고하여, 정확한 최초 기억 당시의 연령을 추정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에서 나이를 보고하는 방식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초 기억의 연령을 아예 만 ___개월로 환산하여 쓰도록 지시할 필요가 있다.

기억의 양 성과 연령에 따라 기억의 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 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어 수에서는 성차와 연령차가 모두 의미있게 나오지 않았으나, 명제 수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는 성과 연령 모두 의미있게 나와, 50대는 20대에 비해 더 긴 기억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긴 기억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억의 양에서의 이러한 성차는 Wang(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

단어 수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한국 피험자들이 전반적으로 최초 기억을 매우 간략한 형태로 보고하여 단어 수에 기초해 기억 양의 의미있는 차이를 검증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실제 한국 피험자들 중 20대가 보고한 평균 단어 수를 Wang(2001)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한국 피험자들은 미국인(평균 92.79, 표준편차 41.34)이나 중국인(평균 42.23, 표준편차 41.42)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형태로 최초 기억을 보고했다(평균 18.83, 표준편차 11.05). 한국 피험자들이 보고한 단어수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요인에 대해서 추후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선 각 언어의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명제 수에 있어서는 중국인 피험자가 보고한 기억의 명제 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인이나 미국인에 비해 수식어를 덜 사용하고 인칭이 생략되는 등 간략한 표현을 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초 기억에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들에 기초해 볼 때 부모-자녀 관계의 일상적인 대화 패턴이나 상호작용, 양육 방식 등과 같은 미시적 수준에서의 변수가 이러한 짧은 기억 서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이후에 좀 더 연구해

볼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초 기억의 내용 성별, 연령별로 최초 기억의 내용이 개인, 가족, 이웃, 학교 관련 4개 범주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가족과 관련된 기억을 많이 보고했다. 이는 대다수의 성인들이 가족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는 Whitbourne(1986)의 연구 결과와 관련시켜 볼 때, 성인기 자기에서 가족을 중심에 놓는 것이 곧 최초 아동기 기억 회상 시 가족 관련 기억을 가장 많이 보고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자전적 기억이 현재의 시점에서 구성되어지는 것이라고 본 Schachtel(1947)의 입장을 지지한다.

한편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족과 이웃과 관련된 기억을 더 많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더 관계적인가’와 관련해 흥미로운 논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 성인들에게 자기 기술을 하게 했을 때 남성은 개인적 자기를, 여성은 관계적 자기를 더 많이 기술한 점과, 성인기에 속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어머니, 혹은 아내의 역할을 정체성의 주요 부분으로 간주한다는 조혜자와 방희정(2006)의 연구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젠더화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역할 때문에 관계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설명(Eagly, 1987)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경향성(타인 vs 자기의 비율) 한국 성인들이 보고한 최초 기억 내용에서 사회적 경향성의 평균은 .75(표준편차 1.04)로 나타났는데, 이를 Wang(2001)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한국 성인들이 보고한 사회적 경향성은 중국(평균

1.24, 표준편차 1.12)보다는 미국(평균 .63, 표준편차 .53)에 가깝다. 이는 우리 사회가 급격한 근대화를 겪으면서 상호의존적인 연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가치관에서 개인 중심의 가치관으로 옮겨 가는 복잡한 과정에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그리고 대체로 피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최초 기억 사건과 관련해 자신보다는 타인을 더 많이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문화의 뿌리로 하고 있어 다른 문화에 비해 성과 연령이 현저한 사회적 범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성이 여성과 높은 연령의 사람들로 하여금 최초 기억에서 타인을 보다 많이 언급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연령에서 타인 언급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유년시절에 대가족 구조에서 여러 가족 구성원이 함께 생활했던 영향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 8세 이전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켜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기억의 정서성 최초 기억에서 느낌과 감정을 자발적으로 언급하는 정도는 평균 1.6 (표준편차 1.1)으로, Wang의 연구에서 나타난 미국인(.95)과 중국인(.42)의 결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피험자들의 최초 기억 나이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늦었던 결과와 함께 고려해볼 때, 어린 연령에 일어난 사건일수록 정서적으로 덜 강렬하다는 이전 연구를 지지해주는 결과로 보인다.

최초 기억에 관련된 정서를 강도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중립적인 정서의 비중이 22.9%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Wang(2001)의 연구에서 보고된 중국의 23.7%와 유사한 수준이고, 미국의 6.7%

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서에 대한 이해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자전적 기억에도 반영되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즉 개인의 독특성과 독립을 강조하는 서구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뚜렷한 정서적 표현이 중시되는 반면, 화합과 조화가 강조되는 동양 문화에서는 겸양과 중용의 정서가 중시되어 강한 정서는 부적응과 관련되기 쉽다. 한국과 중국에서 나타난 높은 비율의 중립적 정서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반영해 준 결과로 볼 수 있다.

최초 기억에 관련된 정서를 긍정성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긍정적 정서의 비중이 52.44%로 나타나, 한국 성인들은 중국의 37.78%이나, 미국의 45.38%에 비해 비교적 높은 긍정성을 보였다. 이는 사회 심리 문헌에서 많이 다루어졌은 자기 긍정성 개념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높이려는 자기고양(self-enhancement) 동기가 기억 과정에도 작용한다는 Greenwald와 Pratkanis(1984)의 연구와 일치된다.

한편 성과 연령에 따라 정서의 긍정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을 때, 전체 모델이 유의미하지 않아 이후 통계를 결과 부분에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전생애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운 논의점이 발견되어, <부록>에 성과 연령에 따른 최초 기억 관련 정서의 긍정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부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대에서는 긍정성 우세 현상이 드러나지 않았고, 이를 다항로지스틱회귀 분석법으로 연령변수의 로지스틱 회귀계수를 평가했을 때 유의미하였다($p=.014$). 이 결과를 Erikson 이론에 기초해 해석해 보면, 초기 성인기에서 중년기에 이르는 시기의 발달 과업은 주로 친밀감이나 생산성과 관련되는데, 이

런 친밀감이나 생산성은 주로 자기의 팽창과 관련되어 긍정적 정서의 우세가 나타나기 쉽다. 그러나 노년기가 시작되는 50대 이후에는 긍정성과 부정성의 통합이 중시되고, 통합을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의 우세에서 벗어나 부정적 정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가 기억의 부호화, 조직화, 회상에 영향을 준다는 이전 연구에 기초해 볼 때, 통합을 추구하는 50대의 자기가 최초 기억에서 긍정적 정서의 비율을 낮추는데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50대 여성의 최초 기억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현재의 자기를 TST 상에서 기술하게 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50대 여성들에게서 나타난 최초 기억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는 현재 자기의 영향이기 보다는, 50대 여성들이 최초 기억 당시 경험했고, 발달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온 사회문화적 경험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 기억 내용 분석에서 여성들은 가족과 이웃 관련 최초 기억을 많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50대 여성들은 20, 30대에 비해 성차별적인 가족 구조 속에서 성장하여, 가족 관련 기억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했을 수 있다.

자기 기술

다음으로 한국 성인들의 자기 기술에서의 특성을 문화적 자기 해석 양식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자기를 기술함에 있어 개인적 자기와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자신 내부의 비교적 일관된 특성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자기 기술을 한다는 선

행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Wang, 2001; 조혜자, 방희정, 2006), 본인이 중요한 개인 특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자아감은 매우 안정적이고 자아에 핵심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조혜자, 방희정, 2006 재인용). 한편, 개인적 자기를 보고하는 경향성에서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20대가 나머지 연령대 모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개인적 자기를 보고했고, 남성은 여성보다 개인적 자기를 더 많이 보고했다. 또한 관계적 자기에서는 20대가 나머지 연령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관계적 자기를 보고했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낮은 관계적 자기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전 생애 발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개인적 성취와 확장이 강조되는 초기 성인기에는 자기를 기술함에 있어서 자신의 특성, 태도나 신념, 행동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경향성은 줄어들고 대신 자신을 관계적으로 기술하는 경향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혜자와 방희정(2006)은 우리 문화가 가족 중심적,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발달 경로를 거치면서 친밀한 관계의 망을 계속 형성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러한 설명에 기초해 볼 때 결혼과 자녀 양육이라는 생의 사건이 20대와 20대 이후의 성인들 간에 자기 기술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연구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온 개인에게서도 관계적 자기 기술이 연령에 따라 증가되는지를 살펴볼 만하다.

기억 측정치들과 자기 기술 간의 관계성

먼저 최초 아동기 기억에 관한 변수들의 관계

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초 기억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서가 강렬하고 긍정적으로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초기 기억의 독특성을 설명했던 이전 연구와 일치되는데, Foulkes (1999)는 어린 연령에서는 의식적 자기 표상의 용량이 제한되고 자기에 대한 지속적인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비표현적이고 사회적 시나리오가 덜 등장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자발적으로 언급된 정서의 수가 많을수록 표현된 정서의 강도도 높고, 타인 관련 언급도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초 아동기 기억과 자기 기술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적 자기 해석이 우세한 사람은 최초 아동기 기억에서 타인을 덜 언급하고, 정서와 관련된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독립적 자기 해석 양식을 가진 사람에게 정서는 자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어서 정서 표현이 권장되고, 상호의존적 연계를 중시하는 관계적 자기 해석 양식을 가진 사람에게 정서는 자칫 강하게 표현될 때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정서적 표현이 통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설명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긍정적 자기 평가 측정치가 최초 기억에서 언급된 정서의 수와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집단과 상호 연계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 정서를 덜 언급하는 것이 보다 적응적인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이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성과 연령 변수를 중심으로 한국 성인들의 최초 아동기 기억과 자기 특성을 분석하였을 때, 성과 연령의 효과가 대체로 유의미하였다. 이 결과는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계층화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때,

개인은 성과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문화적 자기 해석 양식을 갖게 되고, 이는 곧 자전적 정보가 처리되고 조직되며 재생되는 방식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을 시사한다. Wang(2001)의 설명에 따르면, 이 차이는 다시 특정 자기해석 양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여, 개인적인 회상과 자기 구성 방식의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이 개인의 성격과 집단적인 문화 모두를 지속시키는 기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아와 자전적 기억이 역동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과정이고 이러한 관계가 단순히 고립된 개인 내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되어진다는 이론적 입장(Bruner, 1990; Fivush, 1994; Tessler & Nelson, 1994; Wang, 2001)을 지지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성과 연령에 따라 자기 해석 양식과 최초 기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기존의 비교문화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함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문화 간 비교를 통해 문화에 따른 자기 해석 양식의 차이를 동서양의 문화 차이로 해석해온 이분법적인 설명의 한계를 넘어서, 개인의 자기와 문화 모두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인간발달의 성격을 발달적, 인지적, 사회문화적 관점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질적 자전적 이야기 분석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여 각 개인의 이야기를 수량화시키고 이를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한국 성인들의 자기 해석 양식과 아동기 기억의 인지적 특성 및 사회 정서적 실체를 체계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횡단적 설계를 사용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것은, 본 연구에서 보고된 연령의 차이가 동시대집단효과인지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인지를 밝히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참 고 문 헌

- 조혜자, 방희정 (2006), 한국 중년 여성의 관계적 자아. 한국여성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자료집, 17-30.
- 조혜자, 방희정, 김아영 (2006), 관계적 자아의 연령에 따른 변화 양상.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연구 2차년도 심포지엄 자료집, 20-37.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uner, J. (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dorow, N. (1989). *Feminism and psychoanalytic the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onway, M. A. (1996). Autobiographical Knowledge and autobiographical memories. In D. C. Rubin (Ed.), *Remembering our past: Studies in autobiographical memory*, 67-9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ss, S.,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5-37.
- Dudycha, G. J., & Dudycha, M. M. (1941). Childhood memor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Review*, 38, 668-682.
- Eagly, A.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Elder, G. H. (1998). The life-course and human development. In R. M. Lerner(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5th ed), 939-991. NY: Wiley.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Fitzgerald, J. M. (1992). Autobiographical memory and conceptualizations of the self. In M. A. Conway, D. C. Rubin, H. Spinnler, & W. A. Wagenaar (Eds.), *Theoretical perspectives on autobiographical memory* (pp. 99-114). Kluwer.
- Fivush, R. (1994). Constructing narrative, emotions, and self in parent-child conversations about the past. In U. Neisser & R. Fivush (Eds.), *The Remembering self: Construction and accuracy in the self-narrative*, 136-15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vush, R., Haden, C., & Adam, S. (1995). Structure and coherence of preschoolers' personal narratives over time: Implications for childhood amnesia.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0, 32-56.
- Foulkes, D. (1999). *Children's dreaming and the development of consciousness*.

-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reud, S. (1949).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J. Strachey, Trans.). London: Imago.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eenwald, A. G. (1980). The totalitarian ego: Fabrication and revision of personal history. *American Psychologist*, 35, 603-618.
- Greenwald, A., & Pratkanis, A. R. (1984). The self. In R. S. Wye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3, 129-178. Hillsdale, NJ: Erlbaum.
- Han, J. J., Leichtman, M. D., & Wang, Q. (1998). Autobiographical memory in Korean, Chinese, and America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701-713.
- Howe, M. L., & Courage, M. L. (1993). On resolving the enigma of infantile amnesia. *Psychological Bulletin*, 113, 305-326.
- Howe, M. L., & Courage, M. L. (1997). The emergence and early development of autobiographical memory. *Psychological Review*, 104, 499-523.
- Howes, M., Siegel, M., & Brown, F. (1993). Early childhood memory: Accuracy and affect. *Cognition*, 47, 95-119.
- Kelly, G. A. (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New York: Norton.
- Kuhn, M. H. & McPartland, T. S. (1954). An empirical investigation self-attitu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 68-76.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41-253.
- McAdams, D. (1997). The case for unity in the (post)modern self: A modest proposal. In R. Ashmore & L. Jussim(Eds.). *Self and identity*. NY: Oxford.
- Mullen, M. K (1994). Earliest recollections of childhood: A demographic analysis. *Cognition*, 52, 55-79.
- Nelson, K. (1988). The ontogeny of memory for real events. In U. Neisser & E. Winograd (Eds.), *Remembering reconsidered: Ecological and tradition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mem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lson, K. (1996). *Language in cognitive development: The emergence of the mediated mi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llemer, D. B., & White, S. H. (1989). Childhood events recalled by children and adults. In H. W. Reese (Ed.),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21, pp. 297-340). New York: Academic Press.
- Rogers, T. B., Kuiper, N.A., & Kirker, W. S. (1977). Self-reference and the encoding of personal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77-688.
- Ross, M., & Wilson, A. E. (2000).

- Constructing and appraising past selves. In D. K. Schacter & E. Scarry (Eds.), *Memory, brain, and belief*, 231-259.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achtel, E. G. (1947). On memory and childhood amnesia. *Psychiatry*, 10, 1-26.
- Singer, J. A., & Salovey, P. (1993). *The remembered self: Emotion and memory in person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 Snow, C. E. (1990). Building memories: The ontogeny of autobiography. In D. Cicchetti & M. Beeghly (Eds.), *The self in transition: Infancy to childhoo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essler, M., & Nelson, K. (1994). Making memories: The influence of joint encoding on later recall by young children. *Consciousness and Cognition*, 3, 307-326.
- Thompson, C. P., Skowronski, J. J., Larsen, S. F., & Betz, A. L. (1996). *Autobiographical memory: Remembering what and remembering when*. Hillsdale, NJ: Erlbaum.
- Trafimow, D., Triandis, H. C., & Goto, S. G. (1991). Some tests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vate and the collectiv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649-655.
- Waldfoegel, S. (1948). The frequency and affective character of childhood memories. *Psychological Monographs*, 62, 1-39.
- Wang, Q., Leichtman, M. D., & White, S. H. (1998). Childhood memory and self-description in young Chinese adults: The impact of growing up an only child. *Cognition*, 69, 75-105.
- Wang, Q., & Leichtman, M. D. (2000). Same beginnings, different stories: A comparison of American and Chinese children's narratives. *Child Development*, 71, 1329-1346.
- Wang, Q. (2001). Culture effects on adults' earliest childhood recollection and self description: Implications for the relation between memory and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2), 220-233 .
- Whitbourne, S. K. (1986). *The Me I Know: A Study of Adult Identity*. NY: Springer-Verlag.

1차 원고 접수: 2007. 4. 15

수정 원고 접수: 2007. 5. 11

최종게재결정: 2007. 5. 12

Developmental Study on Korean Adults' Self-Description and Earliest Childhood Recollection

Hyun-Jeong Kim Hee-Jeong Bang Hye-Ja Cho Sook-Ja Cho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self-descriptions and earliest childhood recollection of Korean Adults in terms of gender and age,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teractive relation between the self-construal and autobiographical memory from life-span and socio-constructive developmental perspective. Korean Adults aged from 20' to 50' (N=352) were asked to make self-description on a shortened 20 Statements Test and to report their earliest memories by filling out questionnaires on memory.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earliest memory, the average age at earliest memory of Korean adults was 4.8 years. They reported more positive and mild emotion in their memories. The younger reported earlier memories. Males and the younger reported more shortened and less other-related memories. The analysis for self-description of Korean adults, showed that both males and females placed more emphasis on individual attributes in describing themselves and that males and the younger reported more individual attributes and less other-related attributes. Final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re relational self-construal they have, the more other-related and less emotional memories they provided and that the more positive self-evaluation they provided, the less emotional memories they reported.

Keywords: cultural self-construal, relational self, independent self, autobiographical memory, earliest childhood recollection